

#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앨범에 관한 고찰

김준수<sup>1</sup>, 조태선<sup>2\*</sup>

<sup>1</sup>한국실용음악교육협회의, <sup>2</sup>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A Study on “Wittgenstein” Album

Jun-Soo Kim<sup>1</sup>, Tae-seon Cho<sup>2\*</sup>

<sup>1</sup>Korea Council of Popular Music Education, <sup>2</sup>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밴드 비트겐슈타인은 신해철이 이전에 결성했었던 대형 밴드 “넥스트” 이후 비교적 밴드의 형태를 갖춘 팀이다. 신해철 특유의 가사와 특정 컨셉이 돋보이는 이 앨범 또한 넥스트 앨범과 유사한 성향을 띄고 있다. 다만 샘플링과 컴퓨터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밴드 사운드가 적절하게 융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나타난다. 본 앨범은 300만원대의 비용으로 제작된 저예산 홈 레코딩 앨범으로 신해철은 메인보컬과 프로그래밍만 맡았고, 모든 작품들은 멤버가 함께 작업하였다. 이 앨범에서는 신해철 혼자만의 음악을 생산하기보다는 팀워크에 비중을 두어 멤버들과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다. 앨범 녹음 저예산 홈 레코딩이 음악 생산에 제약이 될 수는 있었지만, 참신하고 매우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받을 부분임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음악을 창작하는 뮤지션들은 자신이 항상 선호하는 음악과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한다. 그렇지만, 창작의 노력이 없으면 진화와 발전도 없다. 끊임없는 변화는 음악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대중음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Abstract** Band Wittgenstein is a relatively band-shaped team since Shin Hae-Chul's previous big band "Next." The album, which features Shin Hae-Chul's unique lyrics and specific concepts, is also similar to the Next album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sounds used on the album that are properly fused sampling based work and computer music. This album is a low-budget home recording album produced at a total cost of 3 million won. Shin Hae-Chul was in charge of the main vocals and programming, and all of the works were done together by the band members. In this album, Shin Hae-Chul focused on teamwork rather than producing his own music. The low budget could have been a constraint on music production, but it must be highly appreciated for it being a novel attempt. Musicians who create music always create conflicts between their favorite music and popular ones. However, without creative efforts, there is no evolution or development in the music industry. It is clear that constant changes can continue to develop musical ability, which lead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pop music.

**Keywords** : Rock Music, Home Recording, Wittgenstein, N.EX.T, Shin Hae Chul, Davink, Devin Lee

## 1. 서론

### 1.1 연구배경

신해철은 1987년 서강대 철학과를 입학하게 된다. 대

학을 12학기를 다니고도, 바쁜 음악 생활로 졸업을 못하고, 결국 자퇴를 하게 된다. 유독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노래 가사에 사랑, 이별 등의 상투적인 어구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삶, 죽음, 사상, 윤리 등 가요에

본 논문은 2020년 청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로 작성된 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October 6, 2020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November 4, 2020

Published March 31, 2021

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나, 문장들을 자주 작품에 표현하게 된다. 그의 개념에서 대중음악은 악보의 음악 부호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매우 능동적이고 자극적인 가사를 활용함으로써 해당 작품을 현실적, 직접적으로 대중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음악적인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컨셉트 앨범이라는 형식을 앨범에 적용한다. 컨셉트 앨범은 앨범 수록곡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전곡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감상하게 되면 감상자로 하여금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가 발표했던 앨범 중 넥스트가 바로 이런 구조의 앨범이라 할 수 있다. 신해철이 발표하는 대다수의 앨범이 이와 비슷한 형식을 띄고 있다. 《Theatre Wittgenstein: Part 1 - A Man's Life》이라는 타이틀의 본 앨범 역시 '한국사회에서 남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4부작으로 제작된 컨셉트 앨범으로 제작되었다[1].

신해철은 “남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보통 한국 사회에서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가해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가부장제 속에서 스스로 얽매고 오히려 고통받는 남자들의 입장을 노래로 표현하고자 하였다.”라고 앨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00년 12월 14일 자 한겨레신문). 이 앨범은 남성성향의 거친 사운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가요의 주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의 남자의 삶과 인생에 대해 비주류 록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밴드로 출범하는 비트겐슈타인은 그가 이전에 결성했었던 넥스트라는 대형 밴드 이후 비교적 밴드의 형태를 갖춘 팀이다. 1997년 해체된 넥스트의 재결합을 기다리던 열성 팬들에게는 약간의 당황스러운 복귀로 보이지만, 신해철 특유의 가사와 특정 컨셉이 돋보이는 이 앨범 또한 넥스트 앨범과 유사 성향을 띄고 있다. 다만, 샘플링과 컴퓨터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밴드 사운드를 적절하게 융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신해철이 발표한 비트겐슈타인 앨범을 분석하고, 비트겐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이점에 대한 앨범의 특징, 가창법과 노래 가사, 곡의 구조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2. 본론

### 2.1 이론적 배경

2000년 12월에 발표한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1997년 넥스트의 해체 이후 영국 출신의 유명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인 크리스 상그리디(Chris Tsangarides)와의 모노크롬 앨범을 발표한 뒤 음악적 구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게 된다. 이때 만난 재미교포 기타리스트 데빈 리와 Crom's Techno Works 앨범의 수록곡 '일상으로의 초대'의 피아노 연주와 영화 〈세기말〉 OST를 함께 작업한 키보드리스트 임형빈(Davink)을 만나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구성된 3인조 프로젝트 형태의 밴드이다. 신해철은 2017년 사망하였지만, 데빈리는 기타연주로, 다빈크는 음악프로듀서로 현재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300만원대 비용으로 제작된 저예산 홈 레코딩 앨범으로 메인보컬과 프로그래밍을 신해철이 맡은 것 외에, 거의 모든 음악은 멤버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밴드 주요 구성 악기 중 기타, 베이스기타, 키보드는 직접 연주를 하였지만, 드럼만은 샘플링 음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앨범의 제작과정에서도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데, 홈 레코딩 방식의 편의성과 공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드럼 멤버의 부재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해철은 이전 발표한 앨범에서도 작품의 리듬패턴을 드럼샘플링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드럼 연주자가 필수조건이라 볼 수 없었다.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2장의 앨범으로 발표예정이었으나, 우선 1장의 앨범으로 발표하게 된다. 활동 당시 각종 인터뷰에서 1집 활동이 마무리되면 2집에 대한 제작을 예정하였으나,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집 앨범발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2년 록밴드 “닥터코어 911”의 멤버였던 쥘리(드럼)와 쇼기(베이스 세션)를 영입하며, 라이브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비트겐슈타인은 2년간의 활동을 접고, 2004년 이들의 멤버들과 새로운 멤버의 영입 등으로 넥스트를 재결성하게 된다[2].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밴드 이름은 “루트비히 요제프 요한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1951)이라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실존했던 철학자의 이름에서 차용하게 된다. 이전 앨범 모노크롬에서도 신해철은 “크롬(Crom)”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는데, 영국의 혁명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그의 팬클럽의 이름인 철기군 역시 크롬웰의 정예부대에서 착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 매체의 인터뷰를 참고하자면, 사실 이같이 크롬웰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착안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 의미는 없다고 하였다. 말소리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을

우선을 생각하면서 작명한 것뿐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 2.1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의 앨범 주요 크레딧은 다음과 같다[3].

신해철(Crom)

프로듀서, 기술, 믹싱, 리드 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 프로그래밍, 코러스, 오케스트라 프로그래밍, 오케스트라 편곡, 리듬 프로그래밍, 보코더 기타, 나레이션, 루프, 프로그래밍, 랩, 백워드 보컬

데빈(Devin Lee)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어쿠스틱 기타, 기술 믹싱 보조

임형빈(Hyung Bin)

보컬, 키보드, 피아노, 무그, 코러스, 오케스트라 편곡, 스크래치, 보코더, 루프, F.X, 랩, 리드 보컬, 기술-믹싱 보조

비트겐슈타인의 참여 스태프는 매우 제한적이다. 신해철이 이전 발표한 앨범들은 다양한 뮤지션의 참여도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 홀레코딩으로 완성된 이 앨범은 제한적 공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세션을 활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순하게 3명의 멤버가 모든 음악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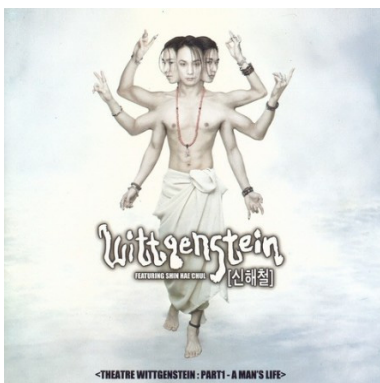


Fig. 1. Wittgenstein Front

Fig. 1.은 비트겐슈타인의 앨범 자켓 전면이다.

앨범 제목이자 밴드 이름인 “Wittgenstein” 하단에는 “FEATURING SHIN HAE CHUL” 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신해철이 비트겐슈타인 앨범에 참여

하여 도와주는 형상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앨범 하단의 Subtitle인 “THEATRE WITTENSTEIN : PART1- A MAN’S LIFE”를 직역(直譯)하여 연결을 해보면, 신해철은, “극장 비트겐슈타인”의 출연자 즉, 배우 정도로 인식 할 수 있다. 또한 “Featu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비트겐슈타인은 정식 밴드로써의 형태보다는 전(前) 작품인 모노크롬처럼 같은 성격의 프로젝트 앨범 정도로 해석된다.



Fig. 2. Asura of the Vedas Myth

앨범 자켓 그림은 신해철과 데빈리, 임형빈의 사진을 한 몸으로 합성을 하고 있는데, 앨범 자켓 그림은 인도베다 신화에 나오는 아수라상과 매우 유사한 형상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글씨체 또한 인도의 언어인 힌디어의 필체를 닮아 그림과의 통일성을 주고 있다. 세 사람의 몸을 합성한 그림 “아수라” 형상은 화를 잘 내고 성질이 포악하며 싸우기를 좋아하는 귀신을 말한다. 앨범 자켓 그림에서 세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의 통일화된 매개체로써 ‘음악적인 색이나 방향, 형태도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작품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누구 한 사람이 리드해서 음악작업을 하기보다는 세 사람이 음악적 공동운명체임을 앨범포스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4].

해당 앨범을 전체적으로 감상을 해보면, 작품 대부분이 무겁고 현실적 주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4부작으로 나누어지는 지점인 “Theatre Wittgenstein Part 1~4”의 테마곡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산만하며 장난스럽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주고 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의 아수라장을 연상케 하는데, 이런 뜻에서 보면, 앨범 전면 그림 아수라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전체적인 음악적 분위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2 수록 곡 분석

앨범의 수록된 곡은 다음과 같다[5].

### Starter

1. Theatre Wittgenstein Part 1 2:17
2. 백수의 아침 4:41
3. Friends 4:50

### Main Dish : Course 1

4. Theatre Wittgenstein Part 2 2:02
5. 오버액션 맨 4:21
6. Cynical Love Song 4:53
7. 수컷의 몰락 PART 1 5:50

### Main Dish : Course 2

8. Theatre Wittgenstein Part 3 1:04
9. 소년아 기타를 잡아라 5:39
10. The Pressure (압박) 4:00
11. 수컷의 몰락 PART 2 6:15

### Desserts

12. Dear My Girlfriend 임형빈 4:40

총 4부작 열두 곡으로 수록된 본 앨범은 트랙리스트 중간마다 “Starter”, “Main Dish : Course1”, “Main Dish : Course2”, “Desserts”라는 문구로 구분을 두어, 레스토랑의 메뉴판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첫 번째 컨트리풍의 록 음악으로 시작하는 “Theatre Wittgenstein Part 1”은 “비트겐슈타인 공연장”이라는 제목으로써 본 공연이 시작되기 멤버들의 소개를 음악으로 시작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무성영화 시기 작품의 전체 내용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변사(辯士)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구현한다. 녹음된 음성은 공연 전(前) 연출진을 소개하는 형상처럼 들리며, 중간 가사에 공연을 보다 즐겁게 즐기라는 의미에서 “오징어 땅콩, 소주”라는 주전 부리를 파는 잡상인의 멘트를 삽입함으로써 음원을 통해서 음악을 청취한다기보다는 공연장에서 연극이나 영화를 직접 체험하는 듯한 사실감을 구현한다. 후렴구를 제창하는 부분에서는 보이스 보코드(목소리 변조 용도로 쓰이는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앨범의 처음부터 부담없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6].

Starter라고 나누어진 1부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의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을 막 시작한 결혼 이전 청년기의 남성을 이야기를 대변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결혼 전의 남자의 관심사 대부분은 친구와 직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백수의 아침과 Friends를 “Starter”라는 타이틀로 1부를 연결 짓고 있다.

두 번째 트랙인 백수의 아침은 Matt Monro의 “The Music Played”곡을 알람 소리로 시작한다. 팝뮤트 기타 주법으로 연주를 하여, 비록 백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청년 백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무게감으로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신해철의 가창법 또한 울림이 강한 자신의 미들로우 보이스를 최대한 억제하고 비음 발성을 적극 활용하여 가볍게 발성을 하고 있음을 음원을 통해 알 수 있다. 2000년인 앨범 발표시점에서 보면 코스닥과 벤처산업의 성장 등으로 한국경제의 변혁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4%로 취업률이 매우 심각한 시기였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한 취업률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신해철은 그가 발표한 앨범에서와 같이 사회적인 시점에서의 접근도 빼놓지 않고 있다[7].

세 번째 트랙인 Friends는 스네어 더블스트로크와 악센트를 적절하게 프로그래밍하여, 실제 드럼연주와 같이 구현한 작품이다.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스트링의 순차적인 개입으로 진행되는 20마디의 긴 전주는 작품의 공간감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으며, 프로그레시브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Fig. 3. Friends

Friends가 종료되면 2부인 Main Dish : Course1”가 시작된다. Theatre Wittgenstein Part 2에서는 강렬하고, 거친 음악을 예고하는 멘트를 유희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래의 가사 일부는 2부로 구성된 작품들이 자극적이고, 직설화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8].

가사 일부 :

자 그러면 잠시 뒤 2부부터는 아주 에로틱한

그 머시나 성인용 쇼가 준비돼 있습니다잉 여러분  
 자암시 뒤에 뵈겠습다  
 허이구 아저씨 표정 얼굴이 벌써 빨개져 부렸네이  
 쫘있다 봐요잉  
 아, 조용하고 빨리좀 혀~  
 뭐여 벌써 끝났다냐? 아, 2부라잖여!  
 어, 에로틱이 뭐여?  
 아 왜 있잖어, 왜 싸우는거, 치고박고오, 그것도 몰려!  
 오~에로틱 오~에로틱 오우

다섯 번째 작품인 오버액션맨은 연인에 대한 집착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거만하고 가부장적 남성이 연인을 향한 집착을 bpm100의 록과 테크노의 결합으로 연주하고 있다. 아래의 8번째 마디의 8분음표에서 16분음표로 변환되는 시점을 음표라기보다는 의도적 버퍼링과 결합된 테크니컬 싸인(sign) 정도로 보여지며, 이것은 분위기를 고조화 하기 위해 음향감과 볼륨감, 방향감의 반복 연주를 함으로써 마치 집착과 연인을 다그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9].



Fig. 4. Over Action Man

1부에서는 직장과 친구의 비중이 큰 시기인 사회 초년생의 남자에 대한 작품들이었다면 2부 “Main Dish : Course 1”는 이성과의 연애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오버 액션맨은 권위적인 남성에 집착의 연애편이라면 Cynical Love Song은 연인의 권태기를 표현하고 있다. Cynical Love Song의 전체적인 작품의 분위기는 매우 차가운 느낌을 갖는데, 전자 장치를 접목하여 인공적인 사운드를 표방하는 장르인 인터스트리얼 계열의 록으로 연주한다.

다음 작품인 보사노바풍의 “수컷의 몰락 part.1”은 넥스트 1집 “아버지와 나”에서 보여진 내레이션 형태의 작품이다. 작사를 맡은 신해철은 주요 멜로디와 제한된 가사로 작품을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내레이션이라는 형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본 작품은 보사노바 재즈의 기타 솔로가 주요 멜로디를 리드하고 있으며 유니즌으로 신해철

육성으로 스캇하듯 테마 멜로디를 중첩되어 읊조리고 있다.

가사 접근 형태는 수컷을 은유화시켜 남성을 동물 생태계의 수컷과 비교하고 있다. 강인하고, 모험심이 강한 수컷이길 바라지만, 치열한 수컷들의 경쟁구도나 사회라는 집단에서 패배자가 되면, 나약하게 몰락하게 되고, 위로조차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약육강식이라는 동물 생존의 경쟁 구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사회와도 괴리감이 없음을 말한다.

여덟 번째 트랙인 Theatre Wittgenstein Part 3가 종료되면 아홉 번째 트랙인 “소녀아 기타를 잡아라”라는 작품이 시작된다. “Main Dish : Course 2”는 가정을 이룬 가장의 이야기로 “소녀아 기타를 잡아라” 같은 경우 그런지 록 장르로써 비트겐슈타인이 활동할 시기인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록 장르이다. 대표적인 밴드로는 펄스, 사운드기든 정도로 설명할수 있는데, 사운드의 묵직하고, 루즈함이 그들의 음악과 닮아있다.

작품을 순차적으로 감상하게 되면 신해철의 가창법이 곡 넘버를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루즈(loose)하고, 헤비(heavy)해 지는걸 볼 수 있다. 1부였던 starter와 신해철의 창법을 비교해 보면, 1부는 비음 섞인 발성으로 옛되게 가창하였다면 2부, 3부에서는 가창법 자체의 소리가 어둡고, 무거우며 성대를 의도적으로 굽거나, 눌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식은 구강의 공명을 아래나 뒤로 두어 약간의 웅얼거림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발음의 정확성이나 유창함과는 거리가 있다. 헤비한 기타진행과 그런지록 장르 및 하드코어적인 록 음악의 루즈함을 확장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10].

이전 활동했던 넥스트에서의 신해철의 발성은 고음의 샤우팅 발성과 선명한 바리톤의 음색을 구사하였다. 이것은 넥스트의 음악의 방향성으로 설명되는데, 프로그레시브나, 스트링 위주의 거대한 스케일의 음악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트겐슈타인의 음악은 그런지(grunge)하고, 하드코어(hardcore)적인 요소가 강한 록 음악이므로 의도적으로 목소리의 왜곡에 무게를 두어 작품 분위기에 적절하게 결합되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 번째 트랙인 The Pressure은 작품에 랩을 삽입한 후 기타리프를 주요 테마로 하드코어 록으로 완성하였다. 작품들의 사운드는 점점 고조되고, 강렬해지고 있으며, 본 작품에서 전체 앨범 분위기의 정점을 찍고 있다. 해당 작품은 국민교육헌장의 앞부분을 가사에 활용하고, 가창하는 랩 보이스에 메가폰 이펙터를 사용하여, 메마르고 차가운 느낌으로 표현을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랩과 노

래를 멤버인 임형빈과 교차하며 가장하고 있다. 임형빈과의 음색이 매우 흡사해서 구분이 쉽지 않으나, 두 사람의 바이브레이션의 파형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다. 신해철에 비해 임형빈의 바이브레이션 진폭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데, 열두 번째 트랙인 “Dear My Girlfriend”을 주의 깊게 감상해 보면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한 영상 인터뷰에서 신해철도 임형빈의 목소리가 자신과 비슷해 제창하는 부분은 서로의 목소리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에피소드를 말을 하였다.

The Pressure은 열두 번째 트랙인 “Dear My Girlfriend”가 종료된 후 30초의 무음의 러닝 타임이 지나면, 동일한 The Pressure가 다시 한번 재생된다. 연주는 동일하지만 작품의 가사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 부분을 열두 번 트랙에서는 열 번째 트랙의 가사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열 번째 정식 트랙에서 묵음처리 된 랩 음절을 “Dear My Girlfriend”후의 Pressure에서는 남자의 성기, 욕설 등을 순화없이 가창하고 있다. 열 번째 트랙에서의 음절 컷팅으로 부자연스러운 진행으로 보아 “Dear My Girlfriend” 후의 “Pressure”가 original 작품으로 증명되고 있다.

다음 트랙인 수컷의 몰락 PART 2에서는 일부분을 백마스킹(Backmasking)으로 녹음을 진행하였다. 작품이 진행되고 전주가 지나가면 주술적 표현의 음성이 들리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백마스킹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백마스킹이란 소리나 메시지를 재생 반대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녹음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 메시지로 확인되지 않으며, 도입부의 가사를 뒤집어 놓아 주술처럼 들리는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1].

4부 Desserts의 마지막 작품은 “Dear My Girlfriend”이다. 이 작품은 신해철이 아닌 임형빈이 전곡을 가창하였으며, “Desserts”라는 의미에서 연상되듯이,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록발라드이다. 일렉기타리프의 묵직한 록 사운드의 전 작품과는 상반된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작품으로 컨셉트 앨범 종료론 느끼게 해주는데, 이것은 영화가 끝난 후의 엔딩 크레딧을 연상하게끔 염두에 둔 의도로 보인다.

### 3. 결론

신해철의 음악적 카테고리인 록, 국악, 테크노음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가 발표한 이전 앨범의 포맷은 앞서 말한 록, 국악, 테크노음악의 확장과 융합이다. 또

한,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음악감독이자, 보컬리스트이다. 더 나아가 대중매체에 경계 없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전 방위적인 아티스트이다. 관객, 사회활동가라는 수식어도 그에게는 어색한 표현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은 항상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였고, 그 호기심은 매번 음악적인 실험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음악의 장르와 연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사 소재와 음원 제작의 형태에서도 나타난다[12].

한국 최초로 컴퓨터 미디음악으로 앨범을 발표하고, 최초의 영어 랩, 국악의 샘플링, 록 음악과 국악의 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하이퀄리티의 애니메이션 OST앨범, 테크노음악과 국악의 접목 등 수많은 실험적인 음악적 행보는 신해철을 단순히 노래만을 가창하는 보컬리스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뮤지션에서 나아가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활동하였던 밴드 넥스트에서의 음악이 프로그레시브의 성향이 짙은 아트록에 기반을 둔 실험적인 록 음악이었다면, 비트겐슈타인 앨범은 얼터너티브, 그런지, 하드코어 록 등 구조적으로 단순한 록 음악의 성향을 띠고 있다. 또, 이번 비트겐슈타인의 음악은 신해철 특유의 공식화된 새로움과 확장과 변화보다는 융합과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전 넥스트의 음악이 펼쳐놓은 듯 오케스트라 스케일의 음악이었다면, 비트겐슈타인 음악은 스쿨밴드 형식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벼운 음악 정도로 해석된다.

이 앨범은 신해철 혼자만의 음악을 생산하기보다 팀워크에 비중을 두었으며, 주제를 선정하면 멤버들과 공동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앨범 녹음 당시 공간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제한된 저예산 홈 레코딩이 음악 생산에 제약이 될 수 있었지만, 참신하고 매우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는 매우 높이 평가받을 부분임을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컴퓨터 한 대로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음악종사자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은 매우 당연하고 쉬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본 앨범이 발표되었던 2000년 12월에는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임을 분명하다. 매번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신해철은 실험 음악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현재 여러 대중음악 아티스트의 본받고 싶어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2020년 1월 영화 투자배급사인 에이스 메이커 무비웍스는 신해철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넥스트 유나이트와 함께 그의 일대기 영화(그대에게 :가제)를 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에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로 Queen의 프레디 머큐리가 재조명되면서, 보



헤미안랩소디 신드롬을 만들었다. 그 시절을 향수하는 기성세대는 물론, 젊은 세대들까지도 쿨에 열광하며, 쿨의 음악성에 대중들은 열광하게 되었다. 음악을 듣는 관점에서 대중들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고 간단한 논리를 갖고 있다.

대중음악은 다수의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을 창작하는 뮤지션들은 자신이 항상 선호하는 음악과 대중들이 선호하는 음악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한다. 소위 말하는 매니아 층만을 위해 자신의 음악을 표현하기에는 경제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데뷔 초 신해철은 현재의 아이돌그룹과 같이 보컬리스트였다. 그러나 그는 대중적 요소보다는 음악적 갈망과 호기심으로 매번 새롭게 접근한 다양한 음악을 생산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저조한 앨범 판매량의 결과물로 나타났지만(비트겐슈타인 앨범 판매량 : 7만장 추산), 창작의 노력이 없으면 새로운 발전도 없듯이 끊임없는 변화는 그의 음악적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으며, 이것이 대중음악의 발전으로 이어졌음은 분명한 사실임은 자명하다.

## References

[1] Yu-lia Kwon et al. Shin Hae-chul and Next City. Munhwa-Dabooks. October. 2015.

[2] Seung-Ho Ji, Hae-chul Shin. Shin Hae-chul's An eloquent speech. March. 2008.

[3] Joon-Soo Kim. A Study on "MonoCrom" Album a master's thesis. May. 2019.

[4]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736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7364)

[5] <https://ko.wikipedia.org/wiki/>

[6] Joon-Soo Kim. Shin Hae-chul's Music analysis-N.EX.T Album analysis.-a master's thesis. February. 2018.

[7] <https://blog.naver.com/o6915878/20201469600>

[8] <http://cromfan.com/x/>

[9] Hankyoreh newspaper Wittgenstein release interview Dec, 2000

[10] J.S. Gong. & T.S. Cho A Study on the Birth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ul Music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12). 455-460. 2017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17.15.12.455>

[11] E.M. Kang, & T.S. Cho. A study on the Improvisation for Jazz Vocal - Praticce and analysis using root position in chord and chord tones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15(6). 377-383. 2017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17.15.6.377>

[12] J.S. Kong, & T.S. Cho. Discussion of the Success of Motown records Company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5. No.6 pp.439-445, 2017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17.15.6.439>

김 준 수(Joon-Soo, Kim)

[정회원]



- 2018년 2월 : 청운대학원 석사
- 2018년 9월 : 청운대학교 출강
- 2019년 3월 : 한국K-POP고교 출강
- 現 알바트로스 뮤직 소속
- 2019년 8월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사무국장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

조 태 선(Tae-Seon, Cho)

[중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